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8.18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샌디스크가 보여준 모범답안

샌디스크 투자자의 날: 높아진 이익, 주주환원 강화 필요성 부각

- 공급 확대가 제약된 산업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을 위해 주주환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샌디스크 투자자 행사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이익성장과 주주환원 강화의 선순환이다. AI 수요와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이익 가시성은 높아졌으나, 메모리 생산량은 단기간 빠르게 확대되기 어렵다. 필요한 성장투자를 지속하더라도 당장의 이익 증가 속도보다 생산능력 확대 속도가 느린 만큼 잉여현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현금을 추가 증설에만 투입하기보다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자본배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샌디스크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FY 2028~FY 2030 장기 재무목표로 매출 연평균 10%대 중후반 성장, 매출총이익률 약 80%, 영업이익률 약 75%, 잉여현금흐름률 약 50%를 제시했다. 설비투자는 매출의 한 자릿수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익 성장에 비해 추가 자본투입을 낮게 유지하면서 현금창출력을 높ی겠다는 전략이다. 높은 자본효율성의 기반은 장기 수요 가시성과 생산성 개선이다. 과거 약 3개월에 불과했던 수요 가시성은 현재 4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장기계약 고객은 8곳이며, 미국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3곳이다. 계약총액은 939억 달러, 미인식 계약금액은 911억 달러, 금융보증은 165억 달러다. 장기간의 고객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 생산량과 설비투자를 실제 수요에 맞춰 결정할 수 있다.
- 공정기술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설비투자 부담을 낮출 것이다. 샌디스크는 웨이퍼당 비트 생산성을 장기간 연평균 약 27%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생산량 증가 목표는 10%대 중후반으로 제시했다. 샌디스크와 키옥시아는 합작회사를 통해 공장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회사의 합작회사는 2021~2025년 업계 NAND 비트의 약 29% 수준을 생산하면서 업계 설비투자의 13%만 사용했다. 기존의 설비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어 매출과 이익 증가만큼 설비투자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높은 이익과 낮은 투자부담은 주주환원으로 연결된다. 샌디스크는 사업에 필요한 재투자 이후 남은 현금을 100%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FY 4Q26 잉여현금흐름 약 50억 달러 가운데, 45억 달러 수준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했다. 남아 있는 자사주 매입 한도는 155억 달러 수준이다.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면 주식 수가 감소해 회사 전체 이익보다 주당순이익과 주당 현금 흐름이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 샌디스크의 전략은 성장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장기 수요에 필요한 수준의 투자는 유지할 것이다. 공정기술과 생산성 개선으로 자본 투입을 최소화할 것이다. 추가 설비 부담을 낮춰 늘어난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전략이다. 메모리 기업들이 생산을 단기간 빠르게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합리적인 자본배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향후 공급 확장이 제약된 산업의 기업들의 평가 기준도 이익 성장뿐만 아니라 늘어난 이익을 얼마나 적은 추가 자본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대된 현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높은 이익을 다시 증설에 투입하는 것보다 필요한 투자 이후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자본배분이 정착된다면 투자자본수익률과 주당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샌디스크가 이번 투자자 행사를 통해 보여준 모범답안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성장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남은 현금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785.8	26,729.2	53,732.4	3,927.2	2,590.2
1W (%)	0.4	0.1	-0.6	-0.3	0.6

주) 8월 14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8월 10일~8월 14일) 리뷰: S&P 500은 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 S&P 500과 나스닥은 주간 수익률 기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양호한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3대지수는 혼조세였는데, 다우지수 홀로 하락했다. 3대지수의 수익률은 다우지수 -0.6%, S&P 500 +0.4%, 나스닥 종합지수 +0.1% 등이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과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1% 상승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의 주간 수익률은 각각 -0.1%, +1.4%다. 변동성지수(VIX)는 4.4% 하락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1.3% 하락했으나, 비M7으로 구성된 ETF(XMAG)는 1.5% 상승했다.
- 지난주 시장참여자들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가지수의 둔화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모두 완만해졌다. 우리는 하반기 전망을 통해 관세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분기 실적발표에서 주당 순매출보다 주당순이익의 성장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관세를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비자물가지수에서 AI 인플레이션이 확인됐다. AI용 제품들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AI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 지난달부터 주거비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었다. 실제 임대료뿐만 아니라 자가주거비 모두 상승률이 MoM +0.3% 수준이었다. 연율화하면 약 3.6~3.7%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5~8%대였던 주거비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정상화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AI 및 관련 전자제품 가격 상승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주거비가 현재 흐름을 이어간다면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 7월 생산자물가는 상품가격 하락에 힘입어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양상이었다. 상품과 서비스 간 차이는 뚜렷했다. 최종수요 상품가격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에너지, 식품 가격 하락 영향이다. 휘발유 가격이 5.7% 하락하며 상품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은 +0.2%였다. 유통과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 가격은 +0.6%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서비스 가격이 +6.5% 상승하는 등 일부 서비스 항목의 가격 압력이 이어졌다.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은 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GICS Level 1기준 섹터별 수익률은 경기소비재(-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 소재(-0.9%)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상승 상위섹터는 에너지다.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유가가 올라 에너지 섹터의 상승 모멘텀이 됐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알파벳의 약세(-2.4%) 영향이 있었다. 알파벳은 6일부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시각 6일 회사채 발행 소식이 있었다. 약 25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무 부담에 대한 불안이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 M7 중에선 테슬라(+4.2%)와 엔비디아(+0.5%)만 올랐다(AMZN -4.3%, GOOGL -2.4%, AAPL -2.4%, MSFT -0.9%, META -0.4%).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한 특별한 호재는 없었다. M7 기업 중 YTD 기준 가장 부진한 테슬라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사는 엔비디아와 금융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 플랫폼 출범 소식이다. 자금조달 확대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순환금융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다.

» 이번 주(8월 17일~8월 21일) 프리뷰: 지정학적 리스크, FOMC 의사록, 소비자 기업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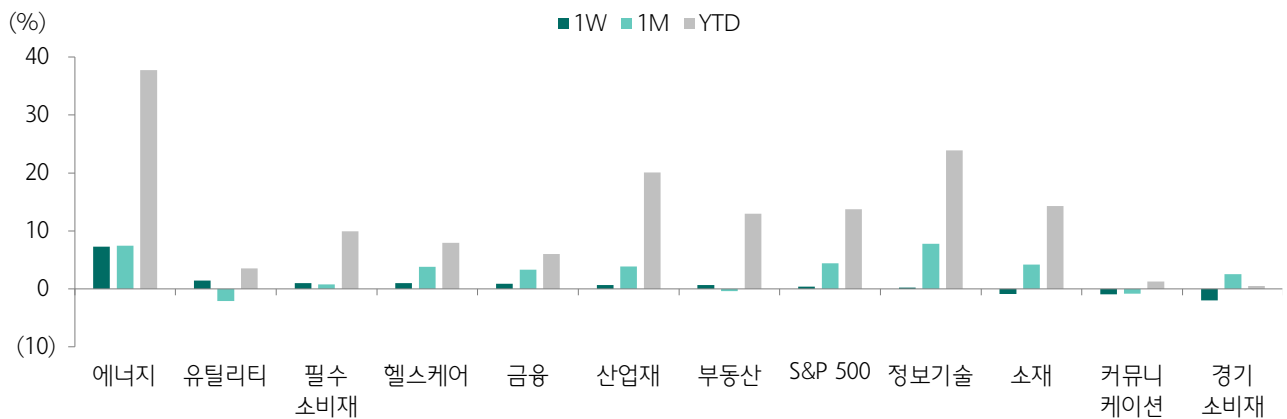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소비자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발표를 한 덕분에 시장참여자들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됐었으나, 미국과 이란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지시각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해서 발언한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고강도 경제 제재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지시각 13일 베네토 재무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기존 방식보다 더 강력할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지난주 유가 상승의 원인은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 강화 언급 영향이다. 이란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란의 안보수장은 미국이 태도를 바꿔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 20일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연준 내부가 실제로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FOMC 의사록을 통해 실제로 몇 명이나 추가 인상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 결과 상으로 투표권자 중 3명이 반대했으나, FOMC 의사록에선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은 총재들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비 투표 위원들까지 상당수가 인상을 지지했다면 연준은 내부적으로 매파적일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던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 FOMC에서 금리 동결의 입장을 밝혔다고 발언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소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관세와 유가 상승 같은 요인들이 지나가면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금리 이하를 논의할 정도로 안심하지도 못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투표권이 없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다소 완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FOMC 의사록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소비자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된다. 필수소비재 대표 기업 월마트의 실적이 20일에 발표된다. 높은 금리 수준과 에너지 가격으로 저소득층의 소비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 5월 베이지북에선 소비가 소득계층별로 점점 양극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비 약화를 우려했다. 뉴욕 연은의 5월 소비자지대조사에서도 가게 지출 증가 기대치 하락이 연소득 50,000 달러 미만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분기 월마트는 실적발표를 통해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질 여지가 있다.
- 소비 둔화를 월마트의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난 분기 월마트의 미국 동일매장매출은 미국 정부의 약가 통제에도 4.1% 증가했고, 식료품과 일반 판매 모두 점유율을 확장했다. 월마트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 매출은 26%, 월마트 광고 매출은 44% 증가했다. 글로벌 멤버십 매출도 17.4% 늘었다. 마켓 플레이스, 광고 멤버십 등 상대적으로 고마진 사업의 성장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외에도 타겟, TJX, 로스 스토어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타겟은 의류, 미용 등 재량 소비 노출이 높다. 재량소비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TJX와 로스 스토어는 소비자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만약 월마트와 타겟의 소비가 약해진 상황에서 TJX나 로스 스토어 매출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저가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17일 8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이전치 15.6), 18일 7월 수입 및 수출 / 7월 주택 착공 MoM(이전치 19%) / 7월 산업 생산 MoM(예상치 0.3%, 이전치 0.1%), 18일 EIA 주간원유재고(이전치 17,423,000 배럴), 20일 FOMC 의사록 /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이전치 41.4)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209,000 건) 등이 있다.
- 17일 BHP / FN, 18일 HD / BIDU / ZTO / TOL, 19일 ADI / TJX / LOW / TGT / EL / BULL, 20일 WMT / BABA / DE / NTES / ROST / FUTU / AAP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8/14)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785.8	-0.2	0.4	4.4	5.1	13.8	20.7	13.7
나스닥	미국	26,729.2	-0.3	0.1	4.7	1.9	18.4	23.6	15.0
다우	미국	53,732.4	-0.2	-0.6	3.0	8.5	8.5	19.5	11.8
STOXX600	유럽	657.9	-0.2	-0.4	2.5	8.4	5.9	18.8	11.1
KOSPI	한국	6,977.9	2.4	11.5	2.3	-7.2	26.7	119.6	65.6
KOSDAQ	한국	864.7	0.4	8.2	9.2	-22.2	-21.8	8.3	-6.6
상해종합지수	중국	3,927.2	0.0	-0.3	4.3	-5.0	-3.8	6.2	-1.0
심천종합지수	중국	2,590.2	0.3	0.6	6.4	-9.5	-3.4	12.6	2.3
항테크지수	홍콩	25,116.9	-1.1	-2.1	2.3	-3.3	-6.0	-0.6	-2.0
TOPIX	일본	4,197.2	0.5	3.5	7.1	8.6	11.6	35.1	23.1
니케이 225	일본	68,713.8	0.6	4.6	7.1	11.9	21.5	58.4	36.5
니프티 50	인도	24,366.0	-0.1	-0.8	0.1	3.1	-5.3	-1.1	-6.7
Vietnam	베트남	1,729.1	-2.1	-2.2	-3.3	-10.0	-5.2	6.1	-3.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8.1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이란 분쟁 관련 지정학적 경계감이 지속되며 유가 상승,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경기소비재: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소비 둔화 우려 부각, 경기 민감 섹터 전반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8/10	인텔, 150억 달러 신주 발행 발표 인텔이 1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 계획을 발표한 후 주가 4% 하락, 지분 희석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94% 급락. 인텔은 조달 자금을 AI 수요 대응을 위한 파운드리 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CAPEX 전망을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2027년에는 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
8/10	애플, 메모리 공급난에 中 창신메모리 칩 적용 시험 WSJ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 판매 일부 제품에 CXMT의 메모리칩 적용을 검토하며 초기 공급 협의를 진행 중. 백악관의 승인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짐.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며 애플이 전 세계 제품 가격을 인상 중인 가운데, CXMT 공급망 확보로 공급 부족 완화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 다만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CXMT를 인민 해방군 지원 기업으로 '1260H 리스트'에 등재했으며, 미국 규정상 맞춤형 칩 주문은 사실상 불가하지만 범용 제품 구매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
8/11	엔비디아, 블랙록·블랙스톤 등 월가 6개사와 5,000억 달러 AI 자본 풀 조성 엔비디아가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월가 6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5,000억 달러 규모의 외부 자본 풀을 조성. 조성된 자금은 엔비디아 고객사에 매력적인 금리로 제공되며, GPU 수요 급증 속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에 제약을 받는 고객들의 확장을 지원해 엔비디아 칩 기반 생태계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려는 목적. 빅테크들의 올해 AI 총투자액은 7,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약정 규모와 시행 일정은 미공개
8/12	엔비디아, 시스코 등 120개사, AI 에이전트 보안 사고 보고 표준 'SAFE' 제안 미 상무부, 2분기 실질 GDP 성장을 속보치가 연율 +1.5%로 1분기(+2.1%)보다 둔화하고 시장 예상치(+1.8%)도 하회했다고 발표. 개인소비(+3.2%)와 민간투자(+3.0%)가 성장을 지탱했으며, 특히 AI 인프라 관련 지출이 핵심 성장 동력. 미국 경제의 기초 수요를 나타내는 민간지출 증가율은 +3.9%로 202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초체력은 견조한 흐름 유지
8/13	미국 7월 CPI 시장 예상 부합,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미 노동부, 7월 헤드라인 CPI가 MoM +0.1%, YoY +3.4%로 6월(+3.5%) 대비 둔화했다고 발표. 근원 CPI는 MoM +0.2%, YoY +2.5%로 역시 6월(+2.6%)보다 축소되며 3개월 연속 개선. 주거비(MoM +0.1%)가 월간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는 두 달 연속 하락(-1.5%). 나티시스 이코노미스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준이 가까스로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지표 발표 후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낙폭을 확대
8/13	오라클, AI 투자 부담에 8월 추가 감원 오라클이 9월 1일 시작 회계연도 2분기를 앞두고 일부 부서에서 두 자릿수 비율의 추가 감원을 추진 중. AI 기술 도입이 인력 감소의 일부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미 구조조정 비용으로 18억 달러를 기록. 2026 회계연도 CAPEX는 전년 212억 달러에서 557억 달러로 급증, 현금 유출이 창출액을 237억 달러 상회.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회계연도에 차입 430억 달러, 주식 발행 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향후 1년 추가 400억 달러 조달 계획
8/16	엔비디아, 오픈AI 데이터센터 금융 보증 절반 축소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오하이오 10GW 데이터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던 금융 보증액을 2,5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미만으로 재조정. 전체 10GW 중 5GW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하며 정식 계약은 이르면 이번 주말 체결 예정. 오픈AI가 엔비디아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해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순환 거래' 구조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앞서 보증 소식 보도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5% 하락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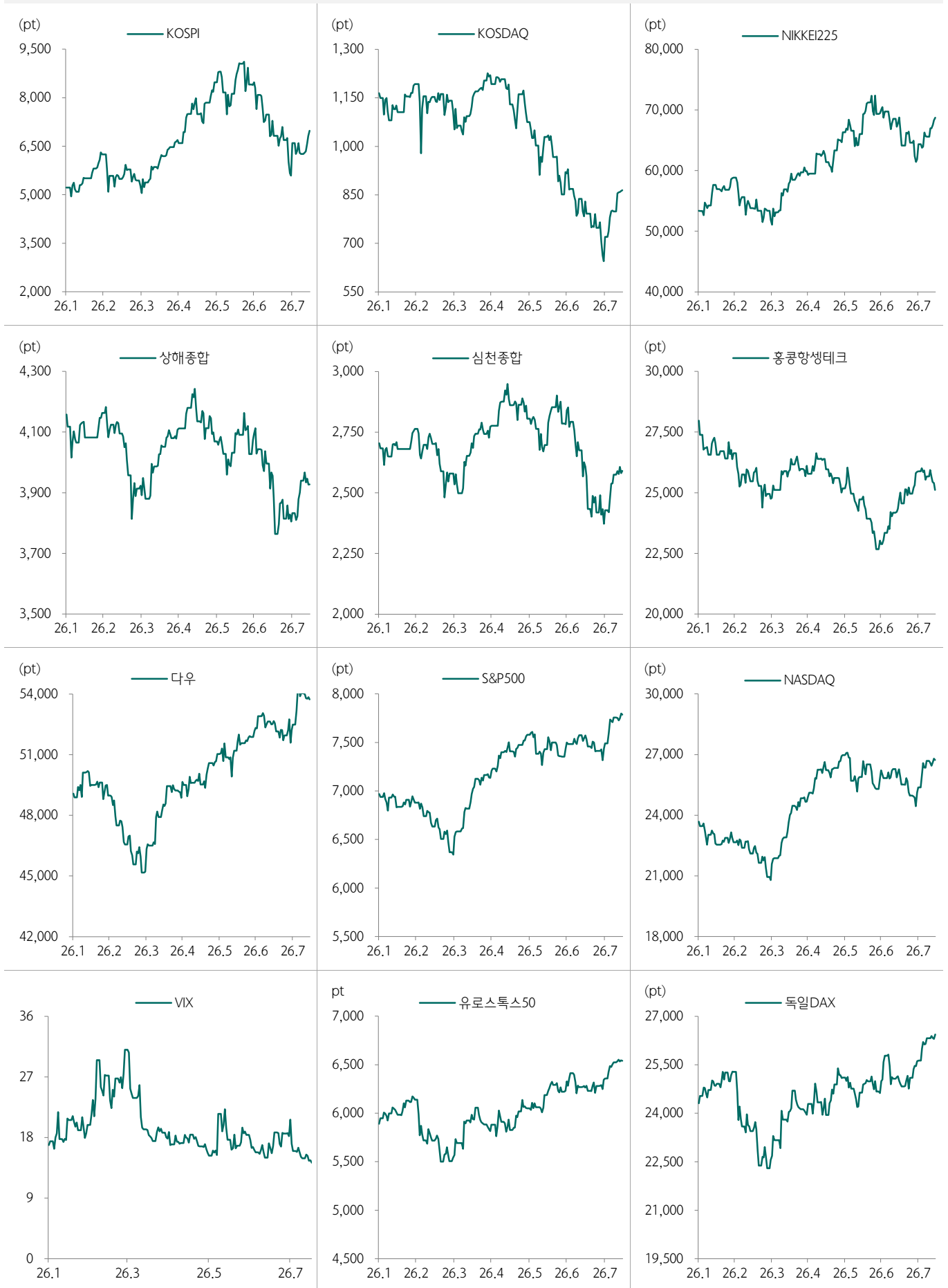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8월)

일	화	수	목	금
3	4	5	6	7
BRK PLTR VRTX MAR WMB OKE TKO ON	SPCX AMD CAT ANET AMGN MCD GILD BKNG PFE BP	LLY NVO SNDK WDC DIS SHOP UBER APP CVS CRCL	COP PH HWM NET DDOG CEG ABNB LNG	VST TTWO PPL
10	11	12	13	14
SPG RCLB STE AMTM	TDG LITE CAH SMC		AMAT ROST TPR	
17	18	19	20	21
BHP FN	HD BIDU ZTO TOL	ADI TJX LOW TGT EL BULL	WMT BABA DE NTES ROST FUTU AAP	
24	25	26	27	28
PANW	JKHY	NVDA SNPS	ADSK DG ULTA BBY HRL LULU CPB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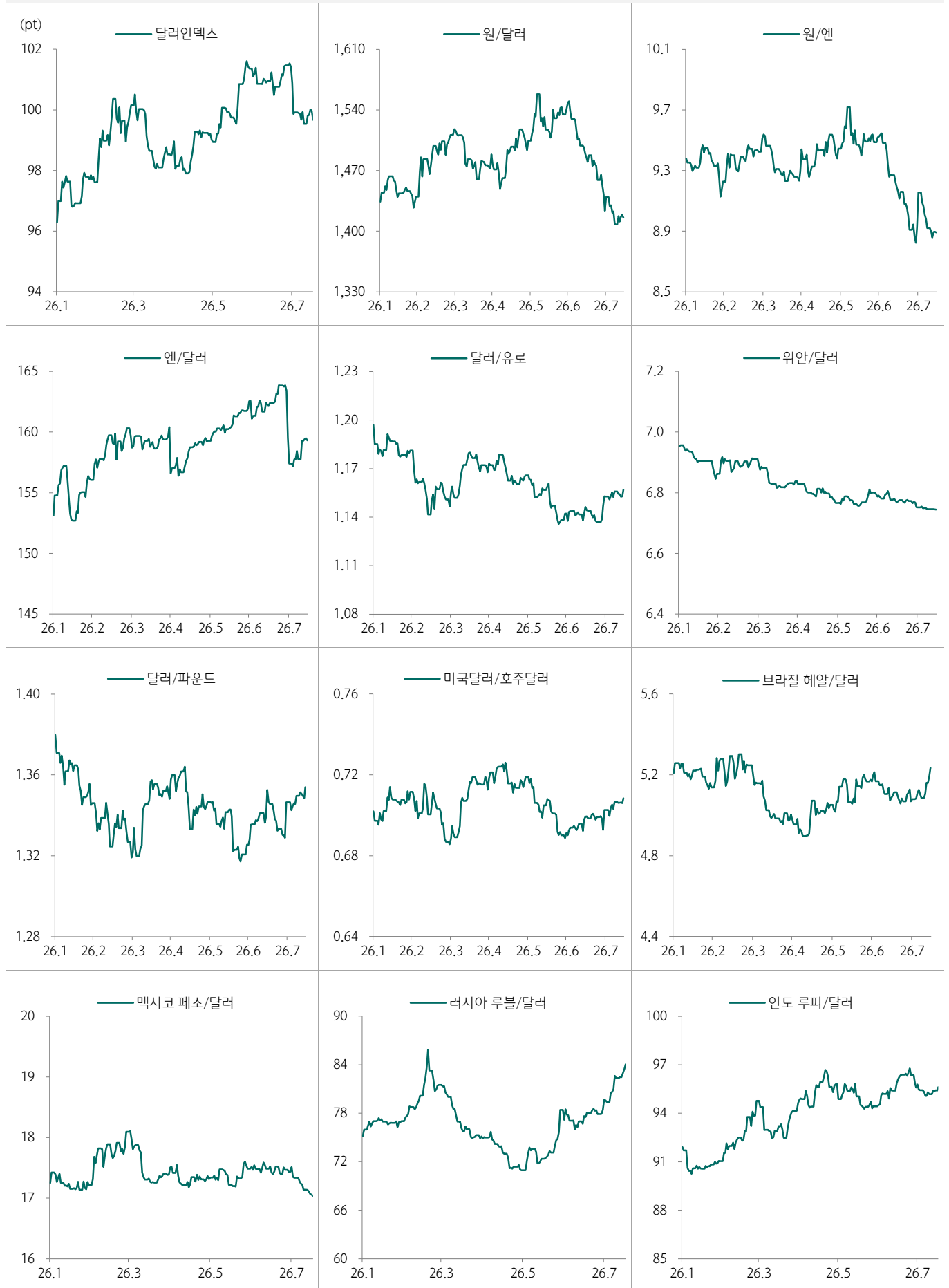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8/17(월)	8월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이전 15.6)
8/18(화)	7월 주택착공건수 (이전 1.427M) 7월 산업생산 (YoY 이전 1.14%) 7월 수출/입 물가지수 (MoM 이전 -0.6%/0.3%)
8/20(목)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이전 41.4) 8월 필라델피아 연준 고용률 (이전 10.0)
8/21(금)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 (이전 53.9)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 (이전 54.6) 8월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 (이전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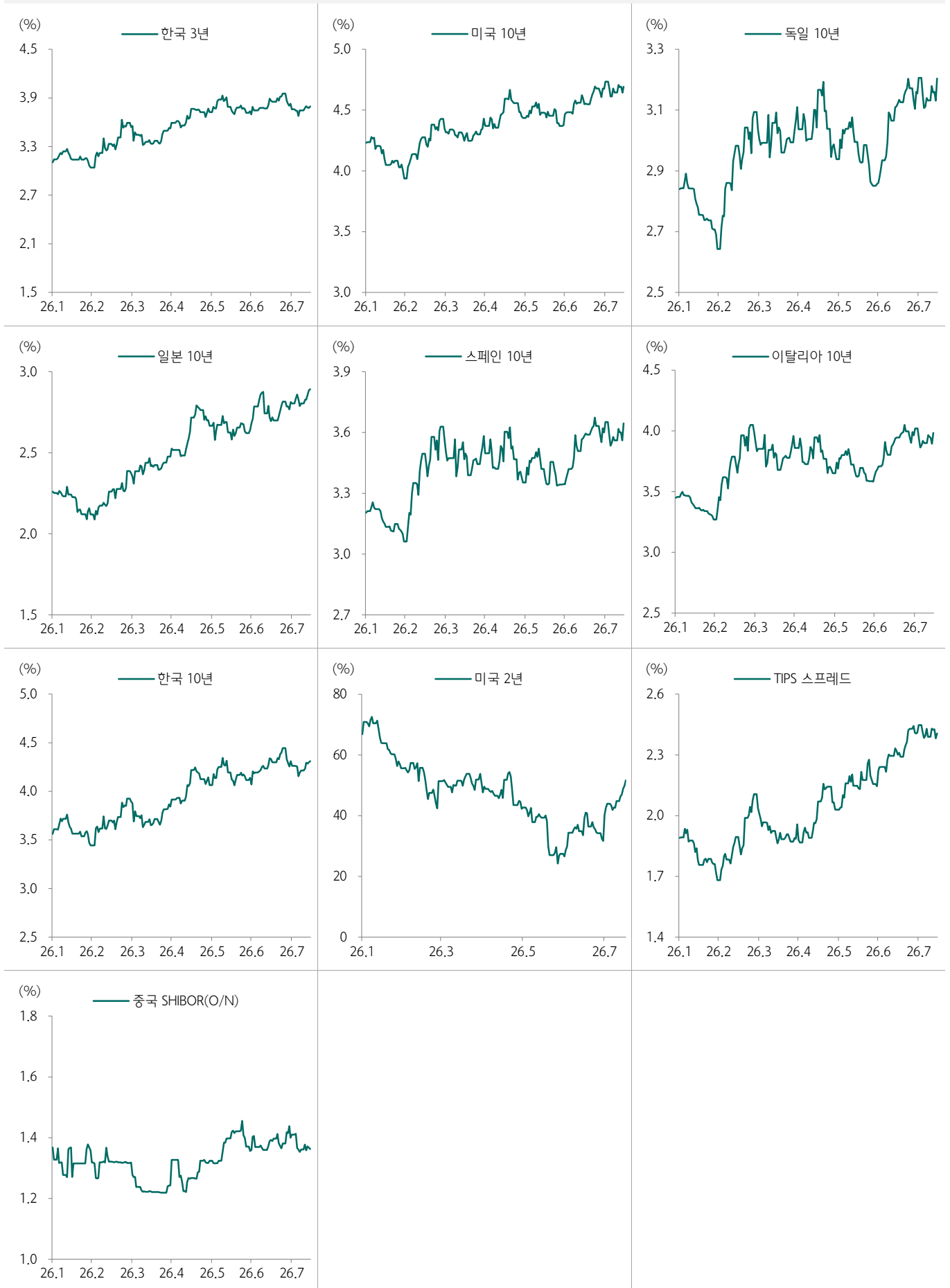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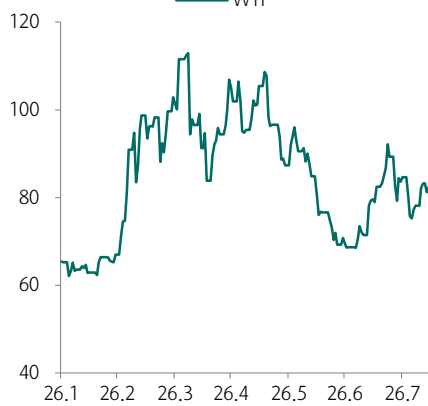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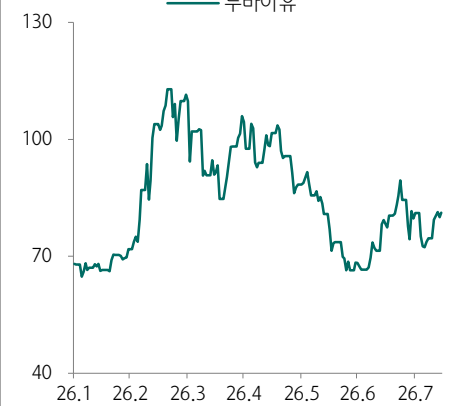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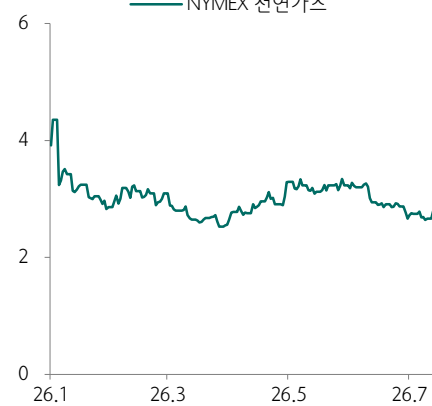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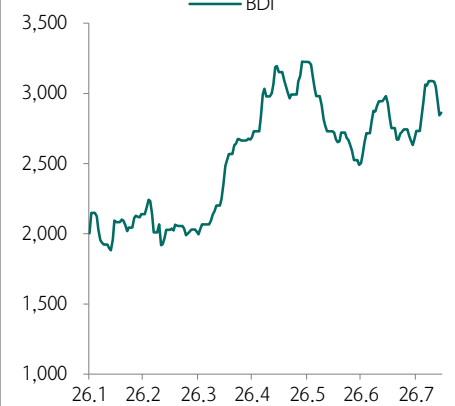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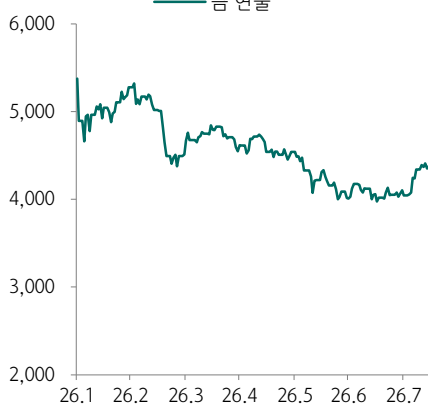
(달러/MBtu)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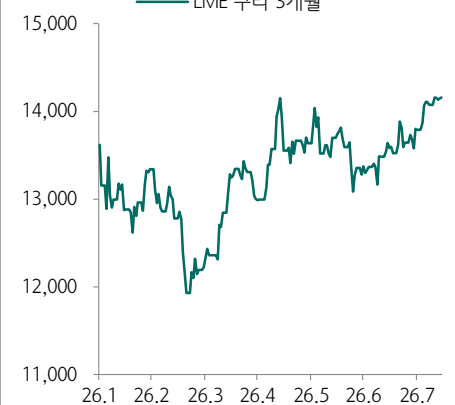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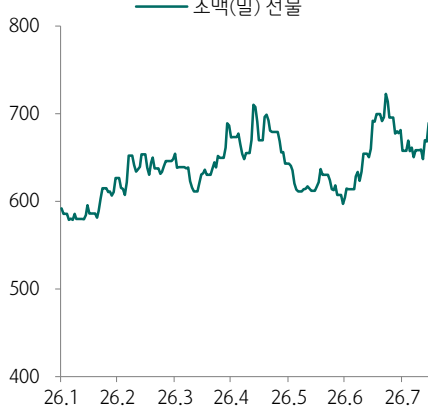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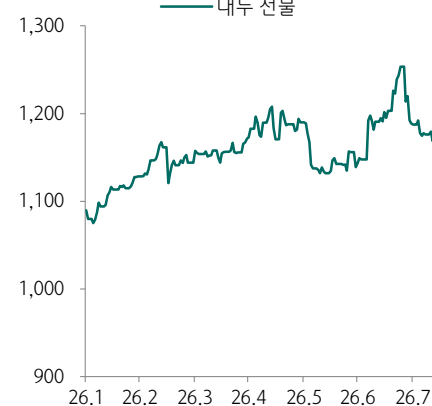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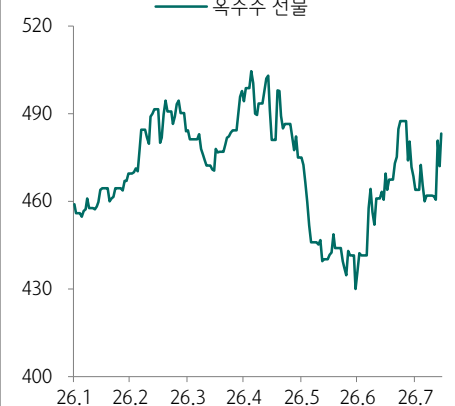
(센트/부셸)



(센트/부셸)



(센트/부셸)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